

## 나가오카시 향토 역사관

나가오카시 향토 역사관은 에도 시대(1603-1867년) 일본의 일반적인 성을 본떠 지어졌습니다. 에도시대(1603-1867년)에는 이곳에서 약 3km 떨어진 현재 JR 나가오카역이 있는 곳에 나가오카 성이 있었습니다.

나가오카 성은 1868년에 막부군과 메이지 천황을 지지하는 왕정복고파 사이에 발발한 내전인 보신 전쟁으로 인해 거의 전소됐습니다. 1898년에 그 부지에 철도역이 문을 열었습니다.

역사관의 입구 옆 돌담에는 나가오카 성의 잔존 건축물인 혼마루(성의 중심이 되는 부분) 성채의 초석이 묻혀 있습니다. 간신히 남은 당시의 잔존 건축물에서는 내부에 전시된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.

1968년에 공식적으로 개관한 나가오카시 향토 자료관에서는 나가오카의 기원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소개합니다. 몇 세기에 걸쳐 나가오카번을 통치해 온 다이묘(지역을 다스리던 영주)의 유품과 일상용품들, 다이묘가 직접 손으로 쓴 시와 운문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

향토 자료관에서는 그 외에도 나가오카와 주변 지역 출신의 역사상 유명 인사들도 추모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는 나가오카 성을 구축한 호리 나오요리(1577-1693년)와 유큐산 공원의 창설자이자 에네오스 석유의 창업자이기도 한 야마다 마타시치(1855-1917년), 전시 중 일본 함대 사령 장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(1884-1943년) 등이 있습니다.